



필름 조프라키시노스코프

—英 마이브리치가 發明—

映畫의 母體인 조프라키시노스코프를 發明한 사람은 에디슨이 아닌 英國의 마이브리치이다.

마이브리치는 寫眞測量技師였으나 한편으로는 競馬狂이었다. 틈만 있으면 競馬場 出入이었는데 어느날 친구와 내기를 걸기에 이르렀다. 내기의 줄거리는 말이 全速力으로 달릴때에 그 말의 배굽이 모두 地面에서 떨어지는 瞬間이 있었겠느냐 하는 問題이다.

이때 마이브리치는 말의 달리는 모습을 全部 攝影하여 調査하기로 決心하고 24臺의 카메라를 競馬장의 코스에 따라 1列로 配設한 다음 한대 한대 카메라 셔터마다에 실을 코스를 따라 옆질러서 달여 놓았다.

그리하여 말이 뛰면 실은 차례로 끊어지고 順序대로 카메라의 셔터가 열리게 된다. 마이브리치는 말의 進속력질주를 24枚의 分解寫眞으로 촬영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는 사진을 連結하여 스크린에 映寫시키려는 努力을 계속하였다. 그가 考案해 낸 것이 사진을 유리板에 現像시켜 圓板에 等間隔으로 붙인 다음 또 다른 한장의 圓판에는 틀을 붙여서 同時に 逆回轉하는 裝置를 만들었다.

이때는 映畫가 없는 때이므로 사람들은 이 역회전하는 사진원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이름지어 조프라키시노스코프라고 했고 이 장치를 에디슨이 利用하여 영화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영화의 發明母體인 장치는 마이브리치이고 영화를 實寫케 발명한 것은 에디슨인 셈.

美大陸을 亞細亞로 錯覺

—콜롬부스의 바하마島發見—

콜롬부스가 美大陸의 一角을 發見한 것이 1492年 12月 24日이며 처음에 到着한 곳은 쿠바 近處의 바하마諸島의 한 섬인 것으로 記錄에 남아 있다.

그러나 콜롬부스는 운명할 때까지도 그가 발견한 섬이 바하마라는 것은 모르고 亞細亞大陸의 一部로 믿고 있었다.

콜롬부스는 1492년 8월 3일 스페인의 바르스港에서 니나號와 더불어 산타마리아號를 타고 아시아대륙의 寶庫를 찾아서 西쪽으로 航海를 繼續하고 있었다.

드디어 70일만인 10월 12일에 그가 꿈에 그리던 아시아대륙의 한 섬을 발견하고 이어서 黃金의 나라인 지팡구를 찾아서 헤매었다.

그러다가 산타마리아호는 콜롬부스가 공상하던 지팡구비슷한 섬에 座礁되었고 그가 실고간 荷物은 니나호에 移積하고 있었다. 매마침 그 섬의 酋長이 나타났으며 그가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意思의 疎通이 되지 않았으나 추장의 손에 쥐고 있는 黃金의 薄板을 보고서 大驚失色하였다. 그때 콜롬부스의 推測이 그가 찾아 헤메던 지팡구가 바로 이곳으로 錯覺하였고 추장의 말투로 미루어 이 섬의 內陸이 시바오로 지폐제작을 하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땅바닥에 대고 입을 맞추는 寸劇까지 벌였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있던 船員들도 黃金의 섬으로 믿고 보물을 찾아서 헤맸으나 目的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섬. 그

美大陸의 일부인 쿠바 근처의 바하마섬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콜롬부스는 그 다음 래 3월에 歸國하여 政府에 이 事實을 報告함으로써 크게 歡待를 받았으나 그나 臨終할 때까지도 그 섬이 美大陸 아닌 아시아의 지팡구를 발견한 것으로 여겼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이다.

脚氣病原 아이크맨이 究明

—오리자닌은 日學者가 開發—

人體와 비타민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은 말할 나위 없으나 이를 發明하게끔 原因을 究明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아이크맨이란 學者이다.

1886年頃 네덜란드 領 인도네시아에는 이른바 脚氣病患者가 續出하였다. 그곳뿐 아니라 東南亞에는 이같은 각기병환자가 無數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年間數千명이 이로말미암아 病死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傳染病이 아닌가하여 多方面으로 調査해보았으나 細菌은 發見되지 않았다. 이때 아이크맨이라는 학자가 熱心히 研究한 끝에 각기의 原因이 쌀의 常食에 있었음을 確認하게 되었다. 그를 契機로 日本의 營養學者 鈴木梅太郎등이 오리자닌이라는 비타민을 발견하였다.

鈴木이 오리자닌을 발견한 動機는 역시 각기병의 原因을 연구하는 過程에서 쌀겨가 알콜에 溶解되는 成分을 확인하고 쌀겨를 알콜에 담겨놓은 다음 그 알콜이 蒸發되면 茶褐色의 가루만이 남게되었고 이 가루를 각기에 걸린 닭에 모이에 섞어서 주면 그 닭들이 기운을 回復하던 것이었다.